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에 대한 연구

김 경 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조의 제약과 신분, 출신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개척하는 행위자로서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면서 적응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자에게 나타난 교육적 영향을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발생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형태발생론은 북한, 중국에서 각기 다른 교육적 경험을 한 북한이탈대학생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구조에서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틀은 형태발생론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분석과정은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실증주의가 인과성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정한 사회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시간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과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및 교육현상을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이라는 교육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교육현상의 인과기제를 탐구하고자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사회 변동과 탈북으로 인한 교육기회 배제 및 박탈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잠재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대학생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질서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교육기회의 한계를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에서 대학교육의 기회평등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에서 교육기회의 한계가 되었던 가족의 경제 상황, 토대, 사회경제적 지위를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 진학이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회비용을 감안한 합리적 선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in seoul’ 대학이 학력 자본으로 발현되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 자본을 성취하였다. 더불어 학력을 기반으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외부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수여, 해외 연수, 국내외 인턴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여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체화되지 못한 한국 문화와 체화된 북한 문화와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방인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가 이들은 한국 입국 이후 제도화된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학력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위계를 경험하며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을 발견하였다. 반면 이들은 대학은 정원 외 특례입학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혜택을 받았지만 취업과정에서 학력만으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능력주의 한계 및 출신으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였다.

셋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을 떠남으로 기존의 사회관계들과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 문화에 적응하며 새롭게 삶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대학 학위취득을 통한 문화자본 형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사회적 출신의 흔적은 심리적으로 남아있지만 제도적 문화자본인 학위취득을 통한 사회적 정체화(identification) 형성은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회복하는 기제로 보여진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대학에서 배움의 가치를 성찰하면서 개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타적 삶을 지향하여 실제로 한국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타자화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모델링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시키며 자발적인 사회적 존중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대학생이 학력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발현시키는 의의와 한계, 추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1. 서론

대학은 사회구조적인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 및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환경을 제공한다(Kaufman & Feldman, 2004). 더 나아가 대학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주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Muñoz & Alleman, 2016).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18만 131명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한국경제, 2020.2.17.). 이에 더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33,738명이다(통일부, 2021).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사회문화 및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 및 제3국 경유 혹은 직행으로 한국사회에 입국하는 독특한 삶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기존의 북한 사회체제에서 형성된 상징체계와 다른 의식 및 사고의 전환, 행동 양식 변화를 전제로 동화 압력을 받기도 한다(노희숙, 2012). 이러한 압목적 요구는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구조 및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붕괴와 중국 및 제3국 거주 시 불안정한 신분으로 교육기회의 배제가 내재화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획일화된 국가교육체제의 사회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중국 및 제3국을 경유하면서 복합적인 사회문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교육 및 사회문화 경험은 연속선상에 있기 보다는 시간, 장소, 사회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식 및 비공식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985명의 응답자 중 4년제 대학 진학 희망자가 61.2%, 대학원 13%, 전문대 15.6%로 고등교육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대학진학의 목적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3.9%)로의 직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9: 48). 더욱이 북한이탈청소년이 SKY 등의 명문대학 관심이 증가하면서(시사저널, 2021.5.9.)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학력사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진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북한이탈대학생은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지만 중도탈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재학 중인 북한이탈대학생 1,147명 중 휴학생 16.6%(190명), 재적생 4.1%(47명)로 전체 대비 약 30%가 휴학 및 제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신문, 2015.6.1). 2018년에도 북한이탈대학생 1,725명 중 중도탈락 24.8%(214명), 휴학률이 43.6%(752명)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대학교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통일부, 2019¹⁾). 이처럼 대학중퇴율이 지속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1) 북한이탈대학생 재적 및 중도탈락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한 숫자이며 대학 교육지원금 신청자 기준으로 파악한 현황이다. 대학 교육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및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진학 현황은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면 중도 탈락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소망하는 직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한국사회의 적응(박은미·정태연, 2018)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해외 난민 청소년의 경우도 심리정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직업적 지위와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Arthur & Flynn, 2011; Stevenson & Willot, 2007).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교육의 경험(우영호 2008; 박은미·정태연, 2018; 문희정·손은령, 2018; 정영선, 2019; 정영선·이승연, 2020) 및 대학생활 적응(조영아·전우택, 2004; 이은혜, 2016; 연보라·김경근, 2017; Kim & Yoo, 2019), 학업중단 요인(유시은 외, 2013; 정성희·조은식, 2019, 김인숙·유시은, 2015)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대학생의 선행연구는 이들이 경험하는 고등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이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사회적 및 학문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관심을 고조시켰으나 문제 중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의 학업중단 및 부적응 요인을 개인의 역량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대학생이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대학 선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조와 문화는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 중국, 제3국, 한국의 사회문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상이한 물리적 구조와 이념적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대학생은 ‘교육’을 매개로 사회구조와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성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학위를 취득하려는 목적과 학위에 부여하는 가치가 남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등교육 선택 및 적응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개척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조의 제약과 신분, 출신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위취득 이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면서 적응해 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교육을 통한 경험과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탈대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둘째,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발현되는 학력가치는 무엇인가?
- 셋째, 북한이탈대학생이 대학 학위취득 이후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기대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자에게 나타난 교육적 영향을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형태발생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형태발생론은 북한, 중국, 제3국에서 각기 다른 교육적 경험을 한 북한이탈대학생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구조에서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의미와 가치

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대학생이 학력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를 해석하고 적응해가는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교육의 의미

한국사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 및 적응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은 1999년 이후 교육지원 대상자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였고(통일부b. 2021), 2011년 사회통합정책 일환으로 ‘탈북청소년 균등기회’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학생의 교육지원정책 목표는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기회 확대를 고려한 것이다.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된 교육정책은 주류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²⁾ 볼 수 있다(김현정·박선화, 2017: 16).

Dworkin, A. & Dworkin, R.(1999)은 소수자의 특성을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 소수자로서의 집단의를 제시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하면 언어 및 문화가 구별되며,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며 한국 사람의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문화 적응이 어렵고 북한 출신이라는 집단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윤인진, 2004: 404-405).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와 편견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지만 지원정책은 포용사회 구현을 지향하고 있어 이중적 상황에 처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이들은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교육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정·박선화, 2017: 6-11).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을 의미하며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팽창으로 이어져 대학 진학을 상승을 이끌어 왔다(김두환, 2008).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2018년 고등교육 진학률은 69.7%이며(통계청, 2019: 24), 201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2명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통계청, 2021: 28). 이처럼 대학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학력주의 지향은 학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오욱환, 2000). 학력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평가 기준인 ‘학력’은 실질적 가치

2)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 및 계층에 대한 과거의 차별 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이다(윤인진·김상학, 2003: 223). 이로써 국가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소수 집단의 차별과 배제의 근원이 교육체제 혹은 사회체제에 근거한 것인지 고려해야 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와 상징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학력의 실질적 가치가 개인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라면, 상징적 가치는 ‘학력 지표(학위, 학점, 자격증)’ 등을 평가한다(남인숙, 2011). 문제는 학력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의 격차가 커질 때 실제 학력 보다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상징적 가치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관습화되거나 제도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박휴용, 2018: 99). 그럼에도 학력주의 사회는 개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학력에 의존하여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학력은 지식의 유용성을 토대로 실질적 가치를 기대하지만 상징적 가치로서의 학력은 개인의 과업성취에 도구적인 역할보다는 학력의 후광효과(halo effect)가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간접 효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학력의 후광효과는 한국사회에서 취업, 임금,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박휴용, 2018: 100).

이러한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전유되어 대학진학 및 학위취득이 상징적 가치로서의 기능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 희망자가 2016년에는 4년제 미만 8.5%, 4년제 64.9%, 대학원 이상이 17.3%였고, 2018년에는 4년제 미만 15.6%, 4년제 61.2%, 대학원 이상이 13%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7: 17; 2019: 48). 실제로 사립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은 2010년 952명에서 2017년 1,84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학 진학 증가율은 2015년 2,006명 기준으로 2016년 1,934명, 2017년 1,844명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18: 173).

한편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입학 응시자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입국한 자녀가 초·중학교를 거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들의 대학입학 합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은 2005년 421명에서 2019년 기준 2,53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2008년 28.1%에서 2019년 4.7%로 감소하였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0).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탈대학생의 진학만큼 중도탈락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박은미·정태연, 2018). 이들의 중도탈락 현상은 남북한의 교육수준 및 교육체계 차이(유시은 외, 2013; 김인숙·유시은, 2015), 북한에서 한국 입국까지의 학업 공백(오윤옥, 2019), 심리·정서적 어려움(조영아·전우택, 2004; 금명자 외, 2004), 경제적 문제(홍정옥, 2010), 대인관계(최윤진 외, 2013; 이은혜, 2016), 대학의 교육현장의 학업 및 문화 적응과 진로 스트레스(연보라·김경근, 2017; 문희정·손은령 2018),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의 어려움(정성희·조은식, 2019) 등이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사회의 교육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겪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여부는 한국 정착과정에서 오는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북한이탈대학생의 사회문화 및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입학을 허용한 교육지원정책의 한계도 작용하였다(최미혜, 2016).

더 나아가 이들의 대학교육의 의미는 개인의 능력 너머의 사회구조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사회의 경제위기로 인한 공교육시스템 약화로 북

한 내 재학 경험이 48.8%로 저조하며, 재학 경험이 없는 경우도 23.3%로 나타났다. 더욱 이들은 탈북으로 인한 제3국 체류시에도 72.1%가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19). 이들은 이러한 교육기회 부재 경험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입국하여 검정고시, 대안학교 및 일반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이들의 다양한 학력 격차는 대학의 학업 성취에 및 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실리중심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교육양극화 현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해도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거나 출신 성분 때문에 대학 진학 및 지위 상승을 할 수 없었던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으며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신효숙, 2009: 32; 좌동훈, 2016: 28; 정영선, 2018: 9-10). 이러한 사회화 현상은 북한이탈대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의 기대와 계획, 목표를 지향하는 태도 및 의사결정 기회가 제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지향적 시간관(present-oriented time-perspective)이³⁾ 고착되어 자율성과 주도성, 책임감이 필요한 대학 교육문화 및 학업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사회 변화와 탈북과정으로 인한 교육기회 부재와 한국의 교육문화와 상이한 가치관과 태도를 내재한 상태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76.8%로 높은 편이다. 이들의 대학 진학 동기는 좋은 직업을 희망하며(56.5%),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거나(32.4%) 결혼 및 친구관계 형성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기(3.7%) 때문이다(남북하나재단, 2019). 이들의 대학 진학은 교육기회 분절로 인한 학업의 열망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신효숙 외, 2017).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도 대학 진학의 이유이다(박슬기, 2011; 조영아·전우택, 2004).

이처럼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학위 취득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의 대학 졸업 및 중도탈락 여부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들의 대학교육 지원방안으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및 사립대 등록금 50%를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19).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대학생이 계층 차이가 재현되며 정당화되는 장(champ)으로서의 대학에서 학력을 취득하기(Bourdieu & Passeron, 1990) 위한 고등교육의 선택 및 실천 행위를 탐색함으로써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의 실재론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대학생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되기 시작하여 질적연구가 68.0% 이

3) 시간지향성은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현재 경험을 저장 및 부호화하여 미래의 기대와 목표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성취와 관련성이 있다. 현재시간지향성인 학생은 한정된 시야로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낮은 교육 포부 수준을 갖는다. 이러한 시간지향성 개념은 아동기 사회화 결과로 가족, 지역, 교사, 동료 등의 의미 있는 타자 등에 영향을 받고 약 11세부터 형성되어 20세 전후에 안정화 된다. 아동이 처한 사회적 제약은 시간지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빈곤지역 청소년은 빈곤지역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과 분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생활양식을 습득하며 미래를 계획하거나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모델링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지향성 발달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년, 2013).

상으로 조사연구방법(22.41%)과 혼합연구방법(6.9%) 보다 많은 편이다(이은화·강승희, 2019; 유지애, 2020). 질적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들의 대학교육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학문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대학생을 개인주의적 관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개념화하고, 사회적 조건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로서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즉 북한이탈대학생이 북한과 상이한 한국의 사회 및 교육구조에서 선택한 대학교육의 상징적 의미를 발현시키는 인과적 기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이들보다 선제하는 구조와 문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행위자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분석한다면 북한이탈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형태발생론(Morphogenetic Approach) 이론적 모델

형태발생론(Morphogenetic Approach)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 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문화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또한,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사회 및 교육 현상 분석과정에서 구조와 행위자 관계를 융합하지 않고 사회 현상의 발생 과정과 인과기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형태발생론은 사회구조와 행위자가 상이한 시기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구조적 조건화(structural conditioning) -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 구조적 정교화(structural elaboration)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Archer, 1995: 81-89). 각 단계의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T1은 객관화된 구조적 조건화가 형성되며, T2는 T1에서 형성된 구조적 조건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로 인하여 T3 단계에서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후 T4는 구조적 정교화로서 T1에서 T3까지 발생한 구조와 상호작용의 결과가 사회구조에 반영되어 구조의 재생산 및 변화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형태발생론은 구조 혹은 행위 주체만을 강조하는 양극단을 피하고자 중도 융합(central conflation)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하향적 융합(downwards conflation)은 구조가 행위 주체를 융합하여 행위자의 결정을 설명하게 되면 구조와 상호작용의 발생과정인 T2 단계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상향적 융합(upwards conflation)은 행위 주체가 구조를 융합하여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게 되면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나는 T3 단계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형태발생론은 사회구조가 사회적 행위의 매개인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와 사회구조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도 융합(central conflation) 단계 즉, 사회구조와 행위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T1에서 T4까지 시퀀스의 연속성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자 한다(Archer, 1995; 이기홍, 2021; 98-99).

이와 같은 형태발생론 개념을 살펴보면, 구조적 조건화는 행위자가 직면하게 되는 객관

적인 상황에서 물질적 및 이념적 특성을 각각 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관계적 속성으로 구성한다. 먼저, 구조적 측면은 행위자가 가지는 이해관계의 상호의존성 정도를 의미한다. 북한이탈대학생이 행위자로서 북한과 탈북과정, 한국의 사회구조 및 교육문화와 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연합관계를 유지하지만 기존 사회구조의 가치와 신념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 측면은 행위자가 가지는 지배가치의 사회적 수용성 정도를 의미한다.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사회의 변동과 탈북과정으로 인한 교육기회 배제 및 박탈로 인한 교육 결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보편적인 학력사회 교육문화를 수용 혹은 저항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은 구조의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에 따른 상황논리(situational logic)를 통해 파악하며, 주요 행위자간의 관계적 특성으로 규정되어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상황논리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상황논리는 행위자에게 사회적 맥락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념체계와 행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Archer, 1995: 218-245).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이 학력사회라는 이해구조 속에서 한국사회 적응과 구성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행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논리가 도출되어 구조적 조건화가 형성되면 행위자는 각자의 능력과 이해,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 학위취득을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대학생은 구조와 문화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의 개념을 상정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행위를 통해 구조와의 관계에서 매개(mediation)된다(Archer, 1995: 195-201). 이러한 사회구조 조건에서 행위전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교육 선택의 상호작용 결과는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고등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및 교육 구조의 영향력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매개되기 때문에, 형태발생론은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 관점으로 접근한다. 분석적 이원론은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발현적 속성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발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구조는 그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행위자 앞서 존재하고, 사회구조와 행위자 각각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간적 추이에 따른 사회문화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구조 변화와 상호작용이 순차적이기보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적 이원론은 인과 기제 설명을 위해 형태발생론의 T1 ~ T4 단계에 따른 순환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기를 기반으로 분석적 이원론은 시간성 고려,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행위의 분리와 연계, 물질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문화 등을 근거로 사회구조와 문화적 조건을 밝히고, 이러한 조건의 영향력 하에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구조적 정교

화의 결과로써 사회현상의 재생산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Archer, 1995: 33-65).

이로 인하여 형태발생론은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상을 실증주의에만 기반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경험 연구로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태발생론을 토대로 북한이탈대학생이 북한과 탈북과정, 한국사회로의 변화 등의 구조적 조건 및 환경이라는 거시적 구조와 행위자로서 한국의 학력사회라는 조건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통한 대학 학위취득의 선택과 가치의 인과과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분석틀

형태발생론은 행위자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맥락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구조적 정교화 단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유지되는 사회구조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상호관계를 통합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기제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은 북한이탈대학생이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구조 및 교육 조건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을 선택하고 학위취득에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의 인과기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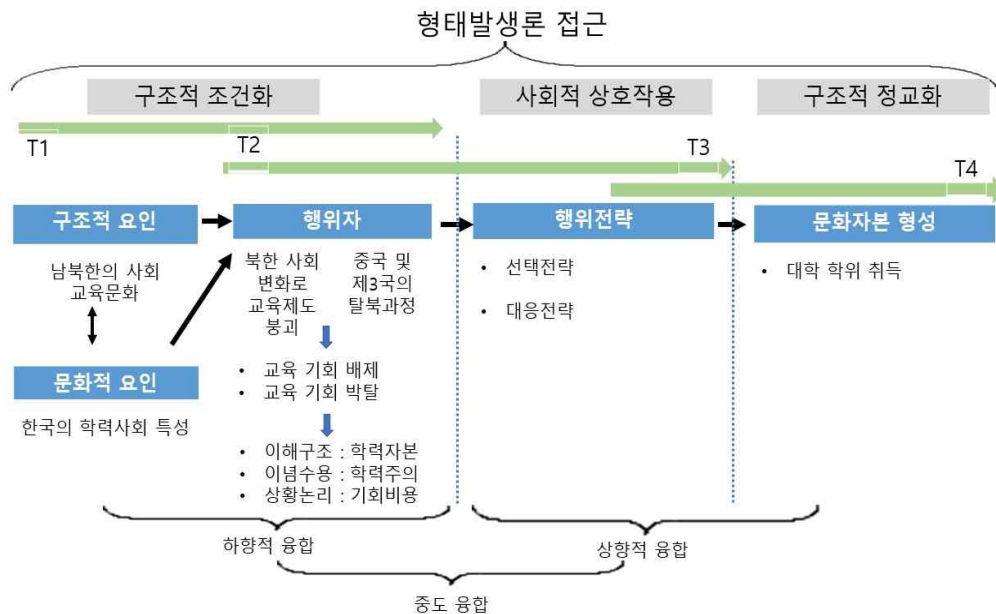
이 논문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조건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태발생론을 재구성한 분석틀은 [그림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발생론에서 제시한 구조적 조건화의 발현성과 상황논리로 구성된 개념을 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행위자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행위전략으로, 구조적 정교화를 학력주의에 기반한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구조적 조건화는 남북한의 사회문화가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탈대학생이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제도를 경험한 특성을 고려한다. 더욱 이들은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 이후 교육제도 붕괴 및 탈북과정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의 학력주의사회 지향과 담론 속에서 대학교육을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북한이탈대학생이 대학 학위취득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전략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통일부, 교육부, 남북하나재단, 외부기관 등의 교육지원정책과 인적 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정교화는 북한이탈대학생이 탈북이라는 특수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기회 분절화가 한국에서 대학 학위취득을 통해 형성하게 된 제도적 문화자본의 교육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대학생의 경우 아동·청소년기에 탈북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보다 공식적 교육과정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 문화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Halle, 1992:

133; 백병부김경근, 2007: 105-106) 맥락에서 접근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북한이탈대학생의 학위취득의 가치를 규명하고 교육지원정책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의 교육적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3] 북한이탈대학생의 학위취득 가치의 분석틀



· 출처: 형태발생론 주기(Archer, 1995: 8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분석틀에 맞게 재구성함

2. 분석 과정

분석과정은 형태발생론에 토대가 되는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은 실증주의가 인과성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험적인 대상과 인과법칙, 기저에 깔린 인과적 구조, 경험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험(empirical) 영역, 현실(actual) 영역, 실재(real) 영역의 층위를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층위로서의 경험 영역은 경험 가능한 사건이며, 실재 영역은 경험 영역의 기저에서 발생하는 인과기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현실 영역은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Bhaskar, 2008; 이기홍, 2021: 91-92).

비판적 실재론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객관적 지식 생산을 위해 가설검정, 측정도구 개발에 의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육현상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Matton & Shipway, 2007: 442). 이로 인하여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 상황에서의 인과법칙은 관찰과 경험이 가

능한 것만 존재하며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본다(이영철, 2006: 80). 또한 실증주의는 특정한 사회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시간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 실증연구가 통계적 의미(statistical significance)와 실제적 의미(practical significance) 차이(Amrhein et al., 2019) 고려하여 인과 기제를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과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 및 교육 현상을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Hedström, 2005: 2; 박찬중, 2012: 187) 한국사회에서 북한 이탈대학생의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이라는 교육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교육 현상의 인과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 진학과 학위취득이라는 경험적 사건과 실제적 사건의 인과구조를 탐색한다면 이들의 고등교육 선택과 가치라는 경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과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의 학위취득 경험이 발견되는 구체적 사건과 원인을 발생시키는 추상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역행추론(retroduction)하여(박찬중, 2012: 94) 이들의 남북한 사회 및 교육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의 선택과 가치의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은 경험적 일반화 보다 인과기제를 밝히며, 사물의 특성이 그 시기마다 실재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이영철, 2006: 85).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색하는 내러티브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정착과 대학진학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교육현상이 한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한 삶의 내러티브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들에게 발생한 사건의 경험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면 한국사회구조와 교육적 가치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개인으로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 봐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북한의 배경 뿐만 아니라 탈북과정, 한국사회의 삶의 과정을 시간적, 사회적, 장소라는 탐구공간에서 이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개별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인식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관련 글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포함한다(Bruner, 1990/2011). 이러한 일환으로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한 경험 - 현상 - 실재 영역의 탐색과정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현상 영역은 이들의 대학생활 및 중퇴율 관련 기사 탐색, 특례입학제도 파악,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대학생과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였다. 경험 영역은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대학생의 내러티브를 탐색했으며 이들의 대학 선택과 학위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재 영역 일환으로 학력사회 담론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교육지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부 및 교육부 정책 자료 탐색, 북한이탈주민의 시간에 따른 입국 추이 변화, 일반고 재학과 대학 재학 및 중퇴율 통계자료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은 인터뷰 내용에 드러난 중요한 사건의 분화과정을 참고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이후부터 시간의 연속성을 따라 북한, 중국, 제3국, 한국이라는 장소적 변화에 따른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시간과 사건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플롯을 형성하면서 학력주의에 기반한 학위취득의 가치가 내러티브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플롯의 배열 및 재배열의 해석적 순환으로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리콴르, 2011).

또한, 분석과정에서 개인적 내러티브와 규범적 내러티브를 구분하고자 하였다(Bruner, 1990/2011). 규범적 내러티브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서사적 자원이며, 개인적 내러티브는 개인이 서사적 환경에 저항하고 타협하면서 형성하는 자기만의 내러티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은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특성에 타협하고 저항하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교육 경험이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과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 하도록 요청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에 의해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인과관계로 드러날 수 없는 비일관적 경험은 이야기 하지 않은 채로 남겨질 수 있다(전은희, 2017). 이로 인하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방어적 주체(Hollway & Jefferson, 2000)’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학위취득의 성취와 한국사회에서의 학력주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의가 필요할듯한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대학 교육지원 대상 범위를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의 정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만 35세를 기준으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의 사회 변화로 야기된 공교육제도의 무력함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고, 중국 및 제3국 체류과정에서도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에 대한 결핍과 열망의 간극이 한국사회의 보편화된 고등교육 기회와 학력사회에서의 교육적 선택과 가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가치의 발현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북한이탈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현상의 인과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설명적 사례로(Yin, 2003)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북한 및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연구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7명에게 다시 전화로 인터뷰 목적과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후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한 자, 둘째, 연구 참여자가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 셋째, 연구 참여자가 대학 학위취득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1] 과 같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이름	나이	재복 학력	한국 교육 경험		대학 졸업 이후	거주지	탈북 년도	가족 관계
				중고등학교	대학				
1	이소망	30대	G전문대 재학	북한 학력 인정	K대 졸업	E대 대학원 수료	경기도	2006년	부모, 언니, 남편(한국), 자녀2
2	오유나	20대	무	한겨레중고→대안학교	H대 졸업	S대 대학원 졸업	서울	2000년	엄마, 여동생
3	장보라	30대	인민학교 중퇴	한겨레중고 → 일반고	S대 졸업	영어강사	경기도	2009년	엄마, 남편(한국), 외삼촌내외
4	김예나	30대	고급 중학교 졸업	북한 학력 인정	K대 졸업	회사원	서울	2012년	단독
5	박단비	20대	무	한겨레중고 → 일반고	C대 졸업	취업준비	서울	2007년	엄마, 본인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보완 사항은 이메일 및 추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과 대학교육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추하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목적, 자료수집 절차, 음성녹음, 중단 결정의 자유, 비밀보장, 익명 처리 등의 연구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면담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이후 전사하였다. 전사내용은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았다. 내러티브 연구는 ‘관계적 책임’의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염지숙, 2009), 본 연구는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구하는 내용으로 연구 참여자의 노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 및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관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연구 참여자의 권

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녹취되며, 인터뷰 진행 시 중단의 자유와 종결 시에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및 녹취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뷰 전에 설명하였다.

IV.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가치의 발현과정

1. 북한사회 변동과 탈북으로 인한 교육기회 분절화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시간과 공간, 삶의 맥락은 사뭇 다르다. 연구 참여자 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고 교육경험의 여부도 달랐다. 이들은 북한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공교육시스템의 결여로 교육기회 배제 혹은 박탈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탈북과정에서 신분의 불안정은 교육기회를 차단하였다.

장보라, 오유나, 박단비는 인민학교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탈북을 했는데 이러한 교육기회 배제 경험은 이들에게 학업의 결핍 혹은 피해의식으로 남아 있었다.

“학교를 잘 못 가고, 아빠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학교를 가고 싶었죠. 학교를 가면 재밌으니까, 친구들과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가고 싶었었는데 그런 걸 못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죠. 배도 고팠고.” (장보라)

“그때 대개 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요즘 애들 보면 학교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은 그 권리가 당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랬든 거 같은데 저는 그 기본적인 그게 없었으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되서 못 갔으니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고.” (오유나)

북한이탈대학생의 탈북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장단기 체류하게 된다. 박단비도 중국 체류 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어머니와 떨어져 교회에 거주하게 되었다. 중국내의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는 외부기관 후원으로 탈북 2세를 보호하지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진미정 외, 2009: 99-100) 경우가 많은데, 박단비는 의외로 교회에 거주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내용과 상이한 학습방법을 경험하면서 당혹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6개월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아이들은 내가 한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말했고 3학년에 곱셈과 나눗셈 같은 걸 배웠는데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녔으니 잘 몰라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끝내는 반 1~2등정도 했어요. 처음에 잘 모른다고 아이들이 놀렸는데 그것이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박단비)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이소망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대학입학 및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진학 및 취업은 본인의 희망보다 토대와 신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다. 더욱 이소망은 가족의 탈북으로 인한 ‘행방불명자’ 낙인으로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체감했다.

“아빠는 대학을 가라고 사범대를 가라 했는데... 그런데 가서 열악한 환경에 기숙사 생활하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대학 안가고 OO전문대 갔어요. 그냥 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그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 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북한은. 뭐 하지 여기서? 뭐 얼마나 언니까지 탈북을 했으니 더 이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가고 그런 거는 사실 북한도 돈 있고 그러면 다 대학갈 수 있거든요. 자비로 대학 생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는 대학가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뭐...,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뭐 할 건데, 대학을 나오면 내가 뭐 발전해서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출신상으로는.” (이소망)

북한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성분을 토대로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은 생존유지를 위해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뇌물 등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정영선, 2018: 10-12).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교육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예나는 대학입시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경험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꼈으며 삶의 무력감과 회의감이 들었다. 더욱 북한 당국에서 정해진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아빠처럼 선생님이 되려고 꿈꿨어요. 하지만 정작 대학 입학시험 결과를 보고 충격 받았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시험지랑 다른 학생 시험지를 바꿔서 계시켰어요. 결국 공부도 못하고 인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가 뒷돈을 주고 대학교에 입학했고, 모교에 선생으로 왔어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대학교는 돈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못가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픔을 겨우 이겨내고 취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앞날이 막막하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고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했어요. 더 이상 다른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김예나)

2. 대학 선택의 상징적 가치 실현

2.1 나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학력자본 : in seoul 대학의 메리트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은 북한사회의 교육시스템 붕괴와 부정부패로 진학하기 어려운 곳 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학교에 진학한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증명하며(정영선, 2019: 322), ‘나’ 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이들의 성공 기준은 ‘학력’ 이었으며 ‘in seoul’ 대학에 자긍심이 배여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교육이 학력의 실질적 가치로서 개인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로 보여주는 것 보다는 상징 가치로서의 학력 지표로 표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남인숙, 2011). 더불어 한국사회는 학벌에 따라 대우를 받으며 개인의 능력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종현, 2007: 402). 이러한 학력주의 인식 양상은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구조 속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받는 ‘in seoul’ 대학에서 취득하게 될 학위 가치를 능력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이라는 것은 학벌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증명해서 보여줄게 있다는 게 나 되게 똑똑해 이런 거를 북한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학부를 졸업하면서 그래도 인서울대, 서울에서 명문대라고 쳐주는 학교를 나왔다는 게 또 어찌 보면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벌이라는 게 솔직히..., 학교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애네들이 사람을 달리보는... 아, 이게 정말 내가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 (오유나)

“..., 나름 인서울에서 낮은 학교를 간다고 한 게 S대 였어요.” (장보라)

더 나아가 오유나는 학사학위를 토대로 석사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 취득을 계획함으로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유나는 석사과정은 학부보다 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 지원했으나 탈락을 경험하고 S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오유나의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석사가 나오냐 집안의 자랑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력 과시는 개인 차원 너머 집안의 학력 과시로 이어져 집안의 구성원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이종현, 2007: 405).

“대학원 어플라이를 계속 했는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이대, 연대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에 넣었는데 당연히 안되죠. 그게 떨어졌는데..., 근데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밖에 못나왔거든요. 엄마도 저한테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석사가 다 나오냐 막 이렇게 하니깐 박사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막 그

렇게 하시니까....” (오유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 경험 부재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학력이 한국사회 정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족의 열망이 대학 진학의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와서 대학을 간다는 게 대개 겁나더라구요.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게 학력이 인정되서.., 바로 시험보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대학 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정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 간다고도, 차라리 미용이나 기술 같은 거 배워서 돈 버는 게 낫을 것 같애, 집에서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소망)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4년제는 적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공부 못해가지고 학점 이런 거 못나오면 어떡하지. 전문대를 가려고 했어요. 또 겁먹고..., 엄마가 뭐가 걱정이나 가면 다 한다, 4년제 대학 가라고 해서.” (장보라)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육을 위해 지리적 이동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유나는 부산에 집을 배정받았는데 ‘in seoul’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 집을 반납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이러한 교육 이동 현상은 학력주의의 한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다(김부태, 2014). 특히 김예나는 중국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함이었는데, 중국 체류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이 한국 입국 시 제공받는 여러 가지 혜택을 설명해주었지만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인이 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바로 다음날 한국행을 선택할 만큼 대학교 진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 이렇게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사회와 문화, 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 없이 2개월 만에 대학에 지원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지리적 이동은 일상생활 변화 및 심리 적응을 동반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한송이·배상훈, 2020).

“한국에 오기를 결심할 때부터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도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감이 오지도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원 나온 지 두 달 만에 하나센터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입시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모집요강 하나를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들여다보니 대학교 원서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많은 대학교들이 적혀 있어서 선택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대 등 이름난 학교도 몰랐고 좀 더 준비해서 가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상태라 그냥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김예나)

2.2 대학지식형성을 위한 인적 유대 강화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긴장, 스트레스, 학업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경험할 수 있다(Björn & Anna, 2021).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교육경험 부재와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부담감이 고등교육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교육 자본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지식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학 전공 및 교양 수업이 한국어로 이루어짐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남북한 언어의 뿌리가 같지만 분단 이후 다른 체제 속에서 남북한 언어가 이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문희정·손은령, 2018: 151). 특히, 이소망은 대학 입학 전 영어 학원과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선행학습을 하였음에도 대학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다니는 내내 때려칠까 말까를 줄다리기를 했든 거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같은 한국말인데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이소망)

또한, 북한이탈대학생은 수업에서 쏟아지는 영어 및 외래어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업 동기를 낮추기도 하며 휴학 및 자퇴를 고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김인숙·유시은, 2015: 132). 이러한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였지만 대학교육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로 인한 대응전략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업내용과 낮은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 동기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으며 영어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반복하여 암기하였고 방학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며 보충했다.

“대학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영어 수업 많이 하는데 어려웠어요. 교수도 이해 못하고 학생도 이해 못하는 수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었어요.” (박단비)

“영어 같은 것은 친구들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남보다 3~4배 노력을 들이면서 공부에 열중했어요. 하나라도 더 배워야 했어요.” (김예나)

이처럼 북한이탈대학생의 영어 학습 배경은 다양하며 대학교육 이수를 위한 영어가 부족한 편이다(Choi, 2014), 그런데 장보라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다르게 영어를 잘했는데 대학입학전형도 영어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고 대학의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영어를 그래도 나름 제일 열심히 했던 과목이 영어, 그나마 기초 없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영어였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만 보는 데가 S대였어가지고...”
(오유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적응을 위하여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학교 내 사회자본인 교수 및 교우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하여 학교 적응 및 교육 자원을 획득하였다(연보라·김경근, 2017). 김예나와 이소망은 북한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한국교육제도의 경험이 없었다. 오유나, 장보라, 박단비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기초학력 부족 및 한국의 교육 내용과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오유나, 장보라, 박단비는 학업의 부족한 부분은 대학 입학 전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대학 친구들에게 북한 출신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출신을 드러냈을 때 통계적 차별을⁴⁾ 체득했기 때문에 대학에서까지 출신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김예나와 이소망은 학과 동기와 교수에게 출신 배경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 했다. 이들이 출신을 밝혔을 때 모든 친구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받았다. 교수 또한 여러 모양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었다.

“저는 교수님들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대학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교수님들 다 찾아뵙고 북한에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나 이런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니까 많이 부족할 꺼다 많이 도와 달라 그랬든 거 같아요. 멘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소망)

“우선 친구들한테 북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했어요. 모르는 것은 스스럼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으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예나)

2.3 대학 학력에 기반한 사회자본 형성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 외에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력사회에서 학벌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 할 수 있는데(전은희, 2017), 연구 참여자들은 ‘in seoul’ 대학교에 다닌다는 학벌이 공기업과 해외 기업에서 인턴 경험뿐만 아니라 장학기관의 장학금 수여, 해외 연수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4)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은 어떤 집단이 갖는 통계적 특징을 근거로 차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별, 인종, 출신,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 다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사람은 자율성 있는 개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집단의 정체성으로 취급받는다. 이로 인하여 통계적 차별에 따라 결론이나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집단의 구성원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최훈, 2019).

지위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으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력으로 제공받은 기회들이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타인과 공동체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관계 경험은 이들이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화 경험에 기인한 대인과 사회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이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턴이런거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운이 좋았고, 뭐 주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공기업 이런데서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직업도 있었고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사실 그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인턴, 이런데 사실 경쟁률이 쉰자나요. 거기 서울대 석사과정 수료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학부가 인서울에 그렇다는 게 학교 어디 나왔어 또래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그런 위치에서 진짜 재는 무슨 대학 이름값을 못한다 그런 말 듣지 않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오유나)

“제가 괄을 갔다 왔거든요. 인턴으로 1년을 학교에서 가는 거를..., 가서 일하고 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괄으로 갈 때도 저는 못갈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치열했고 어학점수도 필요했고 영어도 굉장히 잘 해야 했고, 자기소개서, 면접 다 영어로 해야 됐는데 그게 저는 엄두가 안나는거예요. 그게 한두 번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제 친한 동기랑 같이 넣었는데 애는 붙었고 저는 떨어지고, 아 안 되나 싶었을 때 옆에서 자기소개서를 봐줄 수 있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붙여주셔서 가지고..., 영어면접도 같이 봐주실 분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장보라)

연구 참여자들은 남북하나재단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에서 제공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어 싱가포르 및 미국 연수에 참가할 기회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였다.

“제가 인턴 끝나고 대학원 오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미국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유나)

“남북하나재단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지원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왜냐면 100명이 지원해서 10명 정도 당선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당선되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어요.” (김예나)

더 나아가 김예나는 대학 입학 이후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장학금 후원단체를 소개받았다. 장학금 후원 단체는 1년만 후원하기로 했었는데 김예나는 후원단체에서 주관하는 조찬 및 자원봉사 모임 관련 안내 연락이 오면 후원받는 게 감사해서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교육 4년 내내 장학금 후원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대학 졸업 이후 K 로타리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K 로타리 장학금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았어요. 저는 꾸준히 로타리회원분들과 함께 봉사도하고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인연을 만들어 갔어요.” (김예나)

3. 학력사회의 인정투쟁

3.1. 대학 교육문화의 이방인(strangers)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적응 과정에서 북한사회와 상이한 가치, 문화, 언어 차이로 낮은 경험에 노출되었으며, 대학교육문화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의 학력사회 풍토와 사회문화 및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소속감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김명선·이동훈, 2013).

이소망은 대학 동기 및 선배와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중고등학교, 고향, 만화영화, 가요 등의 대화에 참여 할 수 없었다. 이들은 대화 속에서 모른다는 ‘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와의 추억 등을 이야기 하거나 대학문화에 동화되기 위하여 MT, OT, 학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한국학생들에게 체화된 문화자본을 함께 배워갔다.

“너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내 또래에서 겪었던 문화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때는 이게 유행이었고, 그 만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혼자 모를 때도 많았고, 그런 얘기 동화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때는 막 학교생활, 애들 문화에 적응한다고 술자리 안 빠지고 다 가고, 과 행사 이런 거 있으면 다 가고 그러면 막차 타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되고.” (이소망)

또한, 장보라의 엄마는 한국 문화 습득과 학업 성취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만나더라도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애들이랑 놀아라’고 제안하면서 북한 출신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수 집단의 부모는 자녀에게 주류 집단의 문화자본을 취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문화적응 및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Kalmija & Kraaykamp, 1996). 이러한 가족의 제안에 따라 장보라는 한국대학생의 치열한 삶을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대학생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을 답습하기 위하여 방학 때마다 영어 학원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더 나아가 한국대학생과 똑같이 되려고 말투도 연습하며

‘카피’ 하고자 노력하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경험하였다.

“나는 재네랑 똑같이 하지 말고 대학교 한국 애들이랑 똑같이 해야지 라고 했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애들의 말투를 따라 했어요. 집에 와서 말 따라하고 이랬었던 것처럼 뭔가 따라하는 게 안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게 카피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카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장보라)

3.2. 출신의 법적 지위와 학력사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통찰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육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신분 상승을 열망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이라는 의미 발산이 타인과의 사회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강창동, 2004). 이들은 북한을 탈북한 이후 중국 체류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한국 입국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부여 받음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함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한다(최대석·조은희, 2010: 222). 이처럼 공식적 신분 변화는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하여 삶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력주의에 기반한 신분적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의 위계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저도 중국에서 몇 개월 정도 살면서..., 진짜 저에 대한 자존감이나 존중은 다 없고 어찌 보면 북한에서 눈치 안보며 살 때가 더 낫을 정도로...,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니까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학부 때 중국에 한 달 동안 인턴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이 중국에 간 거랑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간 거랑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고, 인턴 끝나고 사적으로 밥을 먹거나 생활 할 때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무슨 다 사장님이구 다 공주님이구 막 그래요, 다 예쁘다 그러고. 저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신분으로 다른 환경을 느꼈잖아요. 그 거에 대한 저한테 굉장히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 갔을 때 나 진짜 성공했구나 한국에 온 것만이라도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뭔가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에 더 갈망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때 이후에 신분 상승에 대한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신분 상승에 대한 이런 마음, 희열, 이런 걸 느끼면서 성공해야 겠구나.” (오유나)

3.3. 취업과정의 경쟁과 불평등의 모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와 ‘대학졸업장’이라는

학력을 통한 문화자본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학 학위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문화자본으로써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정영선·이승연, 2020: 725-726). 이들은 대학 재학 기간에 인턴, 해외연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커리어를 준비했지만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공을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출신으로 인한 통계적 차별 한계를 직면하였다.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평등과 ‘in seoul’ 대학은 존재론적 가치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상황에서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을 의미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북한이탈대학생의 취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S대 대학 동기들 보면 대개 잘 가거든요. 호텔을 가도 좋은 데를 가고 일반기업을 가도, 대기업을 가고 은행도 다들 잘 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봐주지 않을까라는게 있어서 처음에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썼었어요. 근데 계속 불합격이 되고 해서 그걸 숨기고 다시 썼었는데 그걸 안쓰니까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차별이 느껴지는 한계점이었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는 그 전형이 있어서 잘 왔는데 이제부터 같은 라인에서 같이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시도를 했는데 아 안 되겠구나 처음 느꼈던 거 같아요. 역시나 힘든 거구나 싫어가지고.” (장보라)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 몇 군데 지원을 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는데...,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을 본 곳도 있고,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적도 많아요. 취업 준비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을 볼 때 출신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김예나)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학위는 표면적으로 남한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력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별 요소가 반영되어 노동 시장에서 자본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취업 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능력주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존 롤스(John Rawls)의 ‘차등의 원칙’을(마이크센델, 2020)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재능 및 교육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받았던 특혜에 익숙해진 경향이 있다(노은희·오인수, 2016: 251). 이러한 맥락에서 장보라는 취업 경쟁에서 특혜 수혜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인지하였다. 대학교육의 특혜는 기회균등 차원이 반영되었지만 취업 경쟁에서 탈락이 과연 출신의 한계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건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서류를 쓸 때 지금까지 제가 탈북을 했다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살기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얘기를 했을 때 평범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이걸로 혜택 보는 것들이 사실 대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혜택 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시험에서도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때 대학..., 아무래도 그 전형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 가지고 3년 내내 야자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서 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안되니까 딜레마에 걸렸었죠.” (장보라)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이 다가올수록 ‘in seoul’ 대학의 학력을 발현시키고 싶어진다. 대학입학전형의 특혜와 대학 학위가 사회적 보상의 결과로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고학력 청년취업율은 2019년 기준으로 67.1%로 2018년도에 비해 0.6% 감소한(매일경제, 2020.12.28.) 현상에 비추어볼 때 연구 참여자들의 고용상황도 대학 학위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력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대학생은 취업시장에서 학력주의 허상을 깨닫는 통과의를 거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취업을 성공함으로 능력주의 신화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력과 출신의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성찰 끝에 ‘더 이상 바라지 말자, 스스로 해보자’ 라고 다짐했다. 그 결과 장보라는 남한 사회에서 가치 있는 언어로 평가되는(정영선·이승연, 2020: 724) 영어를 통해 취업을 하였다. 김예나는 대학 재학 중 전공과 상관없이 회계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취직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취업이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형성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보라는 해외 인터넷기관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 친구의 학원이었고, 김예나는 K 로터리의 한 회원의 회사에 취직하였다.

“대기업을 많이 여러 개를 한 일 년 넘게 취업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실패했고...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한참 취업 준비할 때 대기업에 미련을 못버려가지고..., 그 학원에 지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일 년 있다가 다시 갔는데 ‘다시 오셨네요’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성취감 이런 거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장보라)

“취직이 안 되고 계속 불합격이 되었는데...,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졸업 이후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원단체 회원 중 한분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게 취업에 도움이 되었어요. 대표님이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김예나)

4. 사회적 리더의 자발성 구현과 사회적 신뢰 관계 형성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의 ‘학위취득’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기 위한 학력 획득의 가치를 넘어선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학위를 통한 제도화된 문화자본(Bourdieu & Passeron, 1990)을 형성하면서 지식 충족 너머의 개인의 성장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며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타적 삶과 사회적 소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회사 생활도 한 2년 정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이 의미 없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월급 받고 출퇴근하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온 것도 그냥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의 현실과 이런 거를 보면서 나를 살게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꺼다. 그래서 어쨌든 분단이 되가지고 이렇게 70년 넘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북한에 살았던 경험들, 전문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통일과 북한 관련된 비전이 생긴 거죠” (이소망)

또한, 대학 학위취득은 미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침반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삶, 스스로가 삶을 창조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꿈꾸었다. 이들에게 한국의 대학 학위취득은 삶의 희망의 토대가 되었다.

“마음껏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잃어버린 20대를 되찾는 느낌이었어요..., 새 삶을 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적응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에서 대학에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어요.” (김예나)

“편견을 깨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딱딱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깨고 싶어요.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도 잘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삶의 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박단비)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대학원을 갈꺼구..., 그런 뜬구름 잡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학부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 최종 목적을 좀 정해 놓고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살다보면 그곳에 가있고 그러면 저도 성취감을 느끼

고..., 저의 목표는 일단 사회복지 전공해서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학업, 여기에 관해서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고 다음에 박사까지 해서 나중에 교육자가 되고 싶거든요.” (오유나)

대학은 지식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라는 거점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Carnoy, 2002; 류승아,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하였다.

“제가 대학교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대학원 공부 하면서 경험도 쌓고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경험도 해보야 할 것 같아서 하나원 비교문화체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만나서 자원봉사 하고 그랬어요.” (오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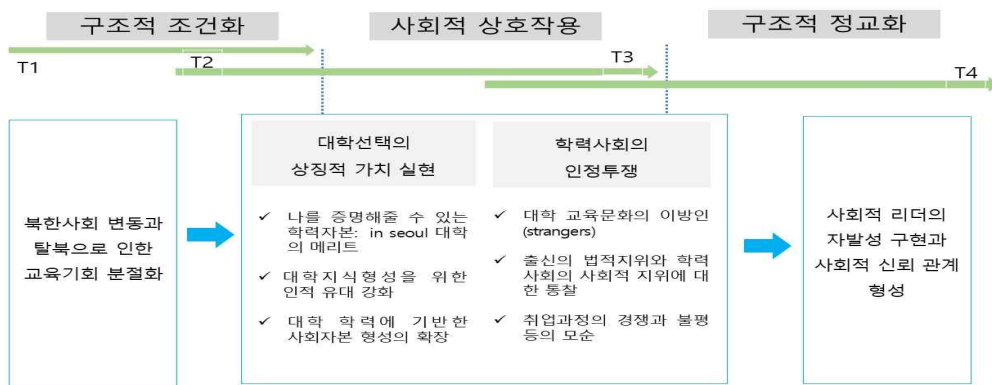
더 나아가 김예나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거나 퇴학당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졸업을 앞두고 북한이탈대학생 동아리를 만들었고 졸업 이후에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K 로타리와 동아리 MOU를 체결함으로써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자생적으로 형성한 공동체를 통하여 소속감, 상호영향력, 욕구 충족,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소속감이 높아지면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Townley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김예나가 만든 K대 동아리는 북한이탈대학생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입학 당시 아는 선배도 없고 정보도 몰라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졸업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북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도 다들 꺼려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서 설득했어요. 왜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왜 동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처음에 3-5명으로 시작한 회원이 지금은 35명 정도 되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학업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김예나)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대학생이 한국사회에서의 대학 선택 과정과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학력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학력가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학위취득 이후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변화된 역할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의 의미 구조



첫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사회 변동과 탈북으로 인한 교육기회 배제 및 박탈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잠재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대학생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질서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교육기회의 한계를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에서 대학교육의 기회평등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에서 교육기회의 한계가 되었던 가족의 경제 상황, 토대, 사회경제적 지위를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 진학이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회비용을 감안한 합리적 선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대학 학위취득 과정에서 ‘in seoul’ 대학이 학력 자본으로 발현되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또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 자본을 성취하였다. 더불어 학력을 기반으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외부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수여, 해외 연수, 국내외 인턴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여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대학생은 체화되지 못한 한국 문화와 체화된 북한 문화와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방인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 입국 이후 제도화된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학력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위계를 경험하며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을 발견하였다. 반면, 이들은 대학은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혜택을 받았지만 취업과정에서 학력만으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능력주의 한계 및 출신으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였다.

셋째, 북한이탈대학생은 북한을 떠남으로 기존의 사회관계들과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 문화에 적응하며 새롭게 삶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대학 학위취득을 통한 문화자본 형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사회적 출신의 흔적은 심리적으로 남아있지만 제도적 문화자본인 학위취득을 통한 사회적 정체화(identification) 형성은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확보하는 기제로 보여진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대학에서 배움의 가치를 성찰하면서 개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타적 삶을 지향하며 실제적으로 한국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타자화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모델링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시키며 자발적인 사회적 존중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정원 외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러한 소수자 우대정책의 접근은 한국사회에서 기반이 약한 이들의 문화자본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출신에 의존하지 않는 기회평등 및 학업 성취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Kislev, 2016). 이러한 통합정책은 북한이탈대학생의 부족한 교육 자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입학 전 학교 및 학력 유형은 북한학력, 검정고시, 대안학교, 일반 고등학교 등으로 다양하다(남북하나재단, 2020). 이러한 대학 입학 전 학교 유형은 성적과 별개로 대학의 학업 성취 및 학위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gg et al., 2009). 따라서 이들의 대학 입학 전 학교 및 학력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학입학전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신효숙 외, 2017), 이들의 대학 입학 전 학교유형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명문대학 졸업이 학력사회와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in seoul 대학 학위가 이들의 능력지표가 되어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 목적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이동(남북하나재단, 2019) 지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학 교육이 사회적 상승 이동에만 편승하지 않도록 대학교육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 북한이탈대학생에게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겸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공선을 실천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탈대학생은 한국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남한 학생에 비하여 물리적 자원, 출신, 교육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고등교육의 학업 성취를 낮출 수 있고(Kislev, 2016),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대학은 북한이탈대학생을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적 지위나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교육기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와 타고난 능력차에 따라 빚어진 불평등까지 살필 수 있는(마이클 샌델, 2020) 성숙하고 차별화된 대학기관의 교육문화와 정책 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 참여자들도 대학 중퇴를 고민했을 정도로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중퇴율은 매해 평균 10% 내외로 나타난다(유시은 외, 2013; 유지애, 2020).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의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습득했던 중국어 및 개인의 관심 영역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대학생은 전공 이해 없이 또는 명문대 진학 욕구, 취업에 안정적인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업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희정·손은령, 2018). 따라서 북한이탈대학생에게 대학 전공의 교과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공 학업 수준 등의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대학생의 중도탈락 이유는 기초 학력 부재와 남한 교육과정의 상이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 및 학습 배경지식이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인숙·유시은, 2015; 오윤옥, 2019; 정성희·조은식, 2019).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 부진은 학습을 위한 인지능력의 결핍이 아닌 남북한의 학습환경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정영선, 2019).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의 관심 영역의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 학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신념과 태도, 정서, 감정, 흥미 등을 반영한 정의적 특성의 강점을 고려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노석구·오필석, 2013).

대학 중퇴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다(홍정욱, 2010).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들의 기회비용 지출은 다행히 사립대학의 등록금 지원 50%, 외부 장학기관의 장학금, 가족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학위취득이라는 문화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북한이탈대학생은 기초생계수급 가정이 적지 않기 때문에(신효숙, 2021)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최미혜, 2016; 정성희·조은식, 2019). 이로 인하여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북한이탈대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나 대학 졸업까지의 기회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부와 대학기관의 장학금 지원이 고등교육 기회라는 형식적 평등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교육의 적응 향상을 위하여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2021년 기준으로 교육지원에 4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그러나 북한이탈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외 실제적인 경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이 대학 학위취득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 되고 이들의 지식재산이 인정받는 장(champ)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 유형이 다른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진학자의 대학 입학 이후 학위취득 및 중도 포기 유형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대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입과 중도 탈락 예방 프로그램이(유지애, 202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중도탈락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업 중단 예측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대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이후 학교 및 학과 안내, 학업 등의 정보를 대학기관에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들은 학교 내외의 사회자본인 교수 및 교우와의 관계를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유시은 외, 2013). 보통의 경우,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에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학업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조영아·전우택, 2004).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 및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처럼(연보라·김경근, 2017) 대학차원에서 북한이탈대학생이 학업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멘토 프로그램 등의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북한이탈대학생은 한국 및 대학문화의 동화 전략으로 언어와 사고, 행동 변화를 위해서 북한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면서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강진웅, 2013). 그러나 이러한 한국적 행위양식을 모방하는 것이 교육 성장을 보장할지의 여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김정원 외, 2018).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한 대학생 및 대학 구성원의 상호존중 의식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의식 전환 교육이 이루어져 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도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업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북한이탈대학생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경우 이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지원제도가 미비하여 학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정영선, 2019). 따라서 이들이 대학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령 COVID-19로 인하여 대학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튜터링 학습 지원 및 K-MOOK 등을 활용한 학습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언어를 습득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의 돌봄 부재로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대학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공동체 소속감 결여는 이들에게 학업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의 대학공동체 의식은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Townley et al., 2013), 북한이탈대학생에게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학교 및 학과의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Wiseman et al., 2004). 따라서 대학기관은 북한이탈대학생이 낯선 대학문화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과 정보를 잘 전달함으로써(류승아, 2014)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학위취득의 가치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 구조 및 문화라는 거시적 차원과 행위자라는 미시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여 대학교육의 선택과 가치를 해석하였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

성을 갖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태발생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학력주의 사회에서 이들의 고등교육 선택과 학위취득의 결과로 나타난 학력자본의 기능과 역할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별에 따른 적응 특성과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제3국 출생 및 남한 출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실재론은 교육현상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질적 및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을 지향한다(이영철, 2006).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한 북한이탈대 학생의 고등교육 경험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사 연구 및 다양한 측면의 검사도구 개발 등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형태발생론 개념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성장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대 학생의 대학 학위취득 및 학업 성취를 폭넓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웅(2013).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91-227.
- 강창동(2004). 한국의 교육문화와 사회적 신분 욕망의 관계에 대한 연구, 教育問題研究, 9, 143-164.
- 금명자·권혜수·이희우(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 치료, 16(2), 295-308.
- 김경년(2013). 교육포부 형성에서 시간지향성(time perspective)의 영향: 문화자본과 의미 있는 타자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인과관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2), 29-54.
- 김명선·이동훈(2013).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1), 39-64.
- 김두환(2008).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8(4), 29-53.
- 김부태(2014). 한국 학력·학벌 연구의 사적 고찰: 1980-2007, 교육사회학연구, 24(1), 77-109.
- 김인숙·유시은(2015). 탈북대학생 학업중단 요인과 지원 방안: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다문화와 평화, 9(3), 122-142.
- 김정원·김지수·김지혜·김진희·조정아·김윤영·김성식·조정래(2018).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Ⅲ),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정·박선화(2017). 소수자 정책 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3(2), 4-28.
- 남북하나재단(2017).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2019). 2018년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2020). 2021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 남인숙(2011). 학력사회와 한국교육의 모순, 사회이론, 40, 101-127.
- 노석구·오필석(2013). 탈북 초등학생의 과학 교육 관련 인지적·정의적 특성, 초등과학교육, 32(4), 495-502.
- 노은희·오인수(2016).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 청년의 취업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235-264.
- 노희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을 통한 의미관점 전환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승아(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43-60.
- 마이클 샌델(2020).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역, 서울: 와이즈베리: 미래엔.
- 문희정·손은령(2018). 한 탈북청소년의 대학적응 경험. 교육문화연구, 24(6), 721-744.
- 박슬기(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대안학교 출신학생을 중심

-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정태연(2018).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 257-288.
- 박찬중(2012). 사회학에서 인과성의 문제: 분석사회학과 비판적 실재론, 경제와 사회, 177-208.
- 박휴용(2018). 학력 개념의 세 층위를 통해 분석한 학벌주의와 교육열, 교육사상연구, 32(2), 97-128.
-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신효숙(2009). 북한 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정담론, 3(1), 27-61
- _____(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과제, KPI Issue Brief, 16, 한 반도평화연구원.
- 신효숙·김본영·김창환·이일현·최영준·권은성·정인숙·왕영민·강민주(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연구(II) 자립지표. 서울: 남북하나재단
- 연보라·김경근(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1), 1-30.
- 염지숙(2009). 유아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학논집, 13(6), 235-253.
- 오욱환(2000). 한국 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오윤옥(2019). 탈북 대학생의 한국생활경험에 관한 개념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호(2008).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시은·배형준·조명숙·김경희·최영실(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유지애(2020). 탈북대학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교사회복지, 49, 253-280.
- 윤인진(2004).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윤인진·김상학(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 222-248.
- 이기홍(2021).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담론201, 24(1), 73-121.
- 이영철(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40(1), 71-90.
- 이은혜(2016). 대안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의 커뮤니티 경험과 문화적응, 질적탐구, 2(2), 259-291.
- 이은화·강승희(2019). 탈북대학생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237-258.

- 이종현(2007). ‘학벌과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학벌과시의 기원과 특성, 社會科學研究, 15(2), 380-414.
- 좌동훈·이민영·지소연(2016). 탈북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은희(2017). 학벌주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 서울대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인류학연구, 20(3), 103-148.
- 정영선(2018).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일과 진로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연구, 10(2), 3-38.
- _____(2019).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 교육 경험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303-333.
- 정영선·이승연(2020).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19-749.
- 정성희·조은식(2019). 탈북대학생 학업 적응 곤란 요인 및 적응 지원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1), 1257-1279.
- 조영아·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진미정·이순형·김창대(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자본, 서울: 학지사.
- 최대석·조은희(2010).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北韓研究學會報, 14(2), 215-240.
- 최미혜(2016). 북한이탈 대학생의 적응 스트레스 및 대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 복지, 35, 85-112.
- 최윤진·나달숙·김윤나·한순영·손진희(2013).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최훈(2019). 혐오 표현의 논리학: 통계적 차별과 인권, 汎韓哲學, 94(3), 135-156.
- 폴 리콰르(2011).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 통계청(2019). 2018년의 한국의 사회지표. 2019.3.22. 보도자료
- _____(2021). 2020년의 한국의 사회지표. 2021.3.25. 보도자료
-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_____(2019). 정보공개청구서답변(6127620), <https://www.unikorea.go.kr>
- _____(2021). 202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한송이·배상훈(2020). 대학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특성, 디지털융합복 합연구, 18(2), 95-101.
- 홍정욱(2010). 탈북대학생 설문조사 보고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외교통상부 통일 위원회
- Bruner Jerome(2011), 인간 과학의 혁명: 마음, 문화 그리고 교육, 강현석 외 옮김,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Clandinin, D. Jean, Connelly, F. Michael(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

- 협과 사례, 소경희 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 Amrhein Valentin, Greenland Sander & McShane Blake, Scientists rise up against statistical significance, *nature*, 2019.
- Archer, M. S.(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hur, N., & Flynn, S. (2011). Career development influ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pursue permanent immigration to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1(3). 221-237.
- Bhaskar, Roy.(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 Blörn Ivemark & Anna Ambrose.(2021). Habitus Adaptation and First-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Adjustment to Higher Education: A Life Course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94(3). 191-207.
- Bourdieu, P., & Passeron, J.(199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1990.
- Carnoy, M.(2002). *Sustaining the new economy: Work, family, and community in information a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Y. H.(2014). English Education Contex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Issues and Polici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8(4), 869-892.
- Dworkin, A. & Dworkin, R.(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Orlando: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Halle, D.(1992). The audience of abstract art: Class, culture and power, in Lamont, M. & M, Fournier, *Cultivating differ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dström, Peter.(2005). *Dissecting the Social: On the Principles of Analytical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way, W. & Jefferson, T.(2000). *Doing qualitative research differently: free association, narrative and the interview method*, Sage Publications Ltd.
- Kalmijn, M. & G, Kraaykamp.(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1), 22-34.
- Kaufman, P. & Feldman, K. A.(2004). *Forming Identities in College: A Sociological Approach*.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5(5), 463-496.
- Kim, J. A. & Yoo, S. S. (2019). The concerns and potential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t "A alternative school", *North Korea Review*, 14(2). 5-25.
- Kislev, E.(2016). The effect of education policies on higher-education attainment of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A cross-classified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 (2), 183-199.

- Maton, K. & B. Shipway.(2007). Studies of education. In M. Hartwing(ed), Dictionary of critical Realism, 7, 297-313.
- Muñoz, Alejandra & Alleman, Nathan F. (2016), Status Convergence: A Sociological Investigation of Undocumented Students' Legal and Collegiate Social Status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8), 990-1008.
- Ogg, T., Zimdars, A. and Heath, A. F. (2009), Schooling effects on degree performance: a comparison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aptitude testing and secondary school grades at Oxford Universit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5): 781-807.
- Stevenson, J., & Willot, J.(2007). The aspiration and access to higher education of teenage refugees in the Uk. Ca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al, 37(5), 671-687.
- Townley, G., Katz, J., Wandersman, J., Skiles, B., Schillaci, M. J., Timmerman, B. E., & Mousseau, T. A.(2013). Explor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undergraduate transfer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3). 277-290.
- Wiseman, R. L., Gonzales, S. M., & Salyer, K.(2004).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degree of involvement, and educational benefi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3, 173-189.
- Yin, Robert K.(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대한민국정척브리핑,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www.korea.kr, 검색일, 2021.6.9.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현황, <https://www.hub4u.or.kr/hub/edu/status01.do> 검색일, 2021.6.9
- 통일부a,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21.6.9.
- 통일부b,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 검색일: 2021.6.19.
- 매일경제(2020.12.28.), 작년 고학력 청년 취업률 67.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25970/> 검색일: 2021.7.2.
- 시사저널(2021.5.9.), [랭면과 철조망⑤] 서울대생 · 26만 유튜버 탈북민 허준,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54> 검색일, 2021.6.2.
- 한국경제(2020.2.17.)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 명 '다문화 사회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70705i> 검색일: 2021.7.15.
- 한국대학신문(2015.6.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 대학서도 이탈하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781> 검색